

교장선생님의 말씀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11월 26일, 수요일은 두번째 marking period가 끝나는 날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엔 listserv에 등록되어 있는 학부모님께 성적표가 이메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marking period의 성적은 학기의 최종성적으로 성적표(transcript)에 남는 성적입니다.
 이 성적은 학생들 모두에게는 평점(GPA)을 결정짓는 성적이므로 무척 중요한 성적입니다. 지금 자녀분들의 그간의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tutoring program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중 낙제를 한 학생의 경우 이 tutoring은 필수 사항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6시엔 음악, 미술 과 기술과에서 주최하는 연말 연주회와 미술 전람회가 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음악회는 물론 학생들에 의한 연주이고 여러분을 연말 분위기에 젖어들도록 해 드리기 위해 충분할 만큼 훌륭한 연주를 선보일 것입니다.
10월 23일 학부모회(PA)에서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해주시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의 뜬뜬 기분 가운데서도 가족과 인생의 즐거움을 깊이 느껴보시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타이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Holiday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 교장 스텐 타이델 드림.

추신: 여러분가운데 학교 listserv에 가입하시고 싶은 분 또는 sign up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는 glitch@stuyhs.net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College Corner

대학위원회 공동의장, Florri Levy
 스타이브슨트 대학진학 사무실 방문 스케줄
Ms. Pat Cleary: 홈룸 A-G; 7:30-8:30 AM.
Mr. Gregg Walkes: 홈룸 H-Q (10교시), 일반상담 (방과후).
Ms. Diana Ferrer: 홈룸 R-Z 와 장학금 관련상담 정보(5교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담시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 궁금한 것을 알게 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전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과관련 수상경력, honors, 과외활동(할애했던 시간) 지역봉사활동, 직장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반드시 기록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기록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12학년 학생들에게
 모든 대학사무실의 지원원서 마감일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각 대학의 원서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현재의 마감일이 임박한 대학들

- 11월 5일: 모든 Rolling Admission 대학
- 11월 17일: 모든 뉴욕주립대학과 시립대학
- 12월 15일: 그 밖의 모든 대학들

대학선택을 위해서 Student Tools-"Applying"를 이용할 것

12학년 학생들에게

- ACT 나 college Board에서 지원대학으로 성적이 보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선택한 대학들에 대해 위에 설명한대로 지원해야한다.
- 교사추천서 양식과 반송용 우표가 붙여진 우편봉투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해당교사에게 봉투와 양식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대학에 제출된 mid-year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 www.stuy.edu 에서 대학사무실의 Bulletin과 Rep 방문 스케줄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 항상 정돈되어 있도록하라. 대학입학전형에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도 반드시 프린트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관련서류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두어야 한다.

스타이의 Parent Coordinator 이신 Harvey Blum씨 (212-312-4926, hblumm@stuy.edu)께서 대학입학지원과정에 관하여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위원회 공동의장, Florri Levy, florid@aol.com,
 Lillian Sage, 3sages@earthlink.net

Bulletin Update

이번호부터 우리학교의 학보인 Bulletin 이 인쇄본을 신청하신 학부모님에 한해 우편발송되고 그 외에는 온라인을 통해 PA 웹사이트, www.Stuy-pa.org (왼편에 있는 Bulletin 을 클릭하십시오.)에서 Bulletin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 Bulletin이 발행되는 대로 PA의 Listserv에 가입되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공지가 될 것입니다.
 Bulletin의 프린트를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stuydaveg@yahoo.com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PA 사무실로 notice를 보내시거나, 212-312-4800 (ext 2711)로 여러분의 성함, 주소, 학생이름, 졸업예정년도를 기입하셔서 알려주십시오.
 PA listserv에 가입하셔서 중요한 정보, 학교의 당면한 이슈들에 관한 그때그때 따끈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stuydaveg@yahoo.com 로 여러분의 성함, 학생이름, 졸업예정년도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음의 교지는 1/2월 합본으로 나갑니다. 그 이후엔 교지가 다달이 발행될 것입니다.

PA 집행부임원 및 학교 리더쉽 팀 임원 선출결과 공고
PA 제 2 부회장 Cathy Minuse

많은 학부모님들(196참석인원)의 성원에 힘입어 10월28일 정기모임과 PA 집행부 임원선출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거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무정선투표 선출 임원
 부회계(Assistant Treasurer): Silvia Rivas
 Senior Member at Large: Isabelle Jouanneau-Fertig
 Junior Member at Large: Silvia Hakanoglu
 9학년 학교 리더쉽 팀대표(Freshman SLT Rep): Monica Kaufmann Watt
 경선투표 선출 임원
 제일 부회장(First Vice President): Jenny Cho
 10학년 대표(Sophomore Member at Large): Randy Nelson
 Rong Cao, Smaranda Filimon
 9학년 대표(Freshman Member at Large): Bruce Hood, Beth Bacon, Timothy Paul Tureski, Igor Shvidkiy, Caroline Buschmann
 축하드립니다. !!!!!!!!!!!!!

COLLEGE MEETING ARTICLES

아래의 글들은 10월28일에 있었던 PA 정기 모임에서 3명의 연사, 모두 대학입학관련전문가들-의 강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서로다른 관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Gerry Khermouch 씨의 그날 들은 입학사정 과정에 관한 연사들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다소 농담섞인 견해와 Florri Levy and Michelle Hermand이 요약한 연사들의 연설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학부모이신 Inna Deshkovich씨는 아들의 대학입학 counselor로 부터들은 충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의 글에서 알게 되겠지만, 심지어는 대학입학전문들 간에도 대학입학전형과정에 관해 서로 다른 충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충고가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님들은 상담내용가운데 자녀의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탐구 비교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학입학에 관한 세가지 다른 견해

Gerry Khermouch
 첫번째 연사이신 Scott Farber 씨는 A-List라고 하는 풀타임 교육상담가인데 자신이 on a whim Harvard에 전액에 가까운 재정보조를 받으며 입학했던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말했다.
 학생들은 SAT를 일찍 치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3번의 SAT 모의 시험(실전시험과 같이 시간을 책정해 두고)을 치른후에 보도록 권한다. (집에서 ipod을 들으며 치루는 시험 말고 여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같은 방법으로 하기를 권한다)
 두번째 연사는 Michael Motto씨로 Yale대학에서 Admission Office 에서 일하는 동안 지원원서만도 2500개를 보냈고 현재는 해마다 약간의 수의 고등학생들에게만 상담을 하고 있으며 범죄학에 관련된 직업을 찾고 있다고 한다. 수년간 6000편 이상의 개인소개서를 읽은 결과 스스로 입학경쟁에 있어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대학입학과 관련된 충고를 해줄만 한 자격은 된다고 생각을 하며 무엇보다도 에세이를 쓸 때에 반드시 흥미있는 Story Line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 무미건조하게 자신의 성취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치 이상을 해 냈던 경험들을 구체적이고 선명한 방법으로 읽는 이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개의 운동팀의 Team captain 이었다거나 과학경시대회에서 메달을 6개를 땀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과외활동을 할 시간의 여유조차도 없는 학생이 여러개의 직업을 가져서라도

공부와 생활고의 balance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같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런 사치스런 과외활동을 할 여유가 된다면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Motto 씨는 충고 한다.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방법으로 균형잡힌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세 번째 연사였던 Steven Roy Goodman은 스스로를 명함에 교육상담가 입학전략가 라고 소개한다. Goodman 씨는 학생과 학부모가 조금만이라도 명문대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훌륭한 교육프로그램과 좋은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많은 대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 말에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말이 옳은 것인가를 궁금해하게 되며 지금 막 원서지원서를 접수하려는 경우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이 지원과정을 더 좌지우지 하게 하도록 할 필요를 느낄 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학지원자는 peer pressure (동년배에게서 느끼는 긴장감)에 견디는 방법에 관해서 카운셀링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압력에 관해 오히려 더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부모일지도 모른다. Goodman씨는 말하기를 뉴욕에서 가장 심한 Peer Pressure는 명문대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간에 느끼는 압력 그것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한다. "College Admission Together" 라는 책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Goodman 씨는 대학입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모두 잊음을 겸비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들어도 보지 못한(그러나 좋은 대학인) 대학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스타이브스톤 고등학교출신이라는 것 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Goodman씨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아주 거슬리는 또 일반적인 의견과 상반되는 충고를 하고 있다. 그의 Early Decision 에 관한 충고는 우리학교의 College Office의 견해와 상반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충고는 재정보조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깊다. 그는 Early Decision 을 하는 경우가 학생들에게 재정보조와 관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Early Decision 을 한 경우에 재정보조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세명 연사들의 연설 요약이다.

Scott Farber(A-List라는 입시학원, 상담학원 운영) SAT 모의시험을 많이 봄으로 실제시험에 익숙할 수 있게 하자.

- 2009년부터는 SAT와 SAT II 모두 여러번 치루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대학입학지원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2009년 이전에 치룬 시험에도 모두 적용된다. ACT는 이미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 SAT는 1,3,5,6월에 치루게 되며PSAT는 12월에 점수가 나온다. 하지만 Farber씨는 학생들이 1월의 SAT에 응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립으로 늦은 봄에 봐야하는 경우나 SAT Subject Test나 AP Test를 치루는 기간을 피할 수 있고, 또 12학년이 되어서 SAT를 봐야하는 경우를 당하지 않고, 또 가급적 SAT를 많이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11학년의 11월을 시작으로 적어도 3번의 정식 모의고사를 치루라고 권한다. 수학의 경우는 10학년을 끝으로 SAT 에서 다룰 모든 영역의 공부를 마치게 되어 있다. 물론 ACT의 경우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 Farber씨는 학생들이 매일 조금씩의 SAT에 나오는 어휘를 공부할 것을 권한다.
- Farber씨는 또 학생들이 많은 명문대학들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SAT Subject 테스트 5월이나 6월 정도에 볼 것도 권하며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언제 치루는 것이 가장 좋은 지를 선생님들과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 ACT 와 SAT 의 차이점
ACT는 어휘실력을 묻는 질문이 없다. 그러므로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다.
ACT는 SAT에서처럼 틀린 답에 대해 점수를 깎지 않는다.
ACT는 SAT 와 SAT Subject 테스트 대신으로 쓰일수도 있다. 어떤 대학들은 실제 ACT를 SAT와 SAT Subject 테스트를 대신 받기도 한다.
ACT 수학은 삼각함수와 esoteric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
ACT에는 과학영역이 있어 데이터와 수량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다.

Farber 씨는 SAT나 ACT 를 선택하기 전에 모의 시험을 한 번 본 후에 결정하라고 한다. 특히 에세이 쓰기 부분의 테스트를 보라고 한다 많은 학교들이 ACT와 에세이 부분을 SAT와 SAT Subject 를 대신해서 받아준다. 그러나 반드시 각각의 대학에 알아 보아야한다.

Motto 씨는 Yale 대학에서의 대학입학사정관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반드시 Story line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말한다. 에세이는 지원자가 누구인가?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공헌을 할 수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Motto 씨에게서 입학사정관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일들이 그들에게 어떤 작용을 했던가 하는 것이다. 그 일들이

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난관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지원의 여러요소에 대해서 얘기 한다.

- 성적표: 어떤 난이도의 어떤과목을 선택했는가 어려운과목을 도전하며 공부했는가 성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9학년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는대신 12학년의 성적은 아주 많이 고려한다.
- SAT 나 ACT 점수: SAT나 ACT를 만점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점이란 단지 시험관으로 하여금 진정 그 점수가 그 학생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 잠시 더 생각을 할 수 있다.
- 과외활동: 얼마나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해왔던가? 여러 다른 활동들을 시도해 보았던가? 그 결과 지도력을 키우는 위치에 까지 갔는가 등등을 평가한다. 대학들은 여러 면에서 균형잡힌 학생을 원한다. 수학이나 과학연구활동들은 항상 대학사정의 선호활동이다.
- 개인의 statement: 이것은 성적이나 그 여타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었던 개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성장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했던 결심과 느꼈던 깊이등을 보여줄 수 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좋다.
-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방법으로는 "팀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School Spirit"이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등등.
- 추천서: 몇몇 학교들에서는 교사로 부터 받은 2부의 추천서와 학교 counselor에게서 받은 추천서는 무척 중요하다. 학생들은 이 추천서의 내용을 통해 자신에 대해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도록 교사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도록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 인터뷰: 보통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긴 resume를 통해 인터뷰어를 감동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이학교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입학허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대부분의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재정상태는 관심이 없다. 조기입학은 극소수에 한한다. 그러나 Motto씨는 그런 종류의 숫자놀음은 별로 권하고 있지 않다.

Steven Goodman씨는 교육컨설턴트로서 하버드나 예일 말고도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 지원자를 언급할 때에 우리 라는 표현은 말자.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명문대학이 중요한 요소인가? 위치가 중요요소인가?
- 당신의 자녀가 무엇에든 일을 미루는 타입이라면 대학입학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라. 결국 모든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인 것이다.
- 재정보조를 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면 스타이의 학생들이 보통 선호하고 지원하는 학교가 아닌 곳도 고려해 보라.
- 가장 압력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다른 학부모로 부터이다. 당신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한해를 휴학한다면 나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여 창피해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는 반 정도이다. 54%의 학생들은 6년만에 학위를 받는다. 당신의 자녀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

과외활동의 중요성에 관하여: 인터뷰 내용발췌본

Inna Deshkovich (ID)

아래의 내용은 본인의 아들과 함께 대학진학상담교사인 Steve Schwartz (SS)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대학지원과정에서 과외활동의 중요성과 관련된 정보이다.

ID: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과외활동에 시간을 할애해야하는가?

이 시간들이 공부에 할애할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학교성적이 우선이 아닌가?

SS: 물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우수한 GPA를 갖추고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GPA하나만 갖고서는 입학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학생들조차도 GPA가

실제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일부대학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학업성적이 충분히 우수하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입학시킬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제한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외활동을 통해서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갖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ID: 여러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한두개의 클럽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가?

SS: 여러클럽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몇몇개의 의미있는

과외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헌하는 노력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입학사정과정에서 많이 유리할 것이다.

ID: 고등학교 클럽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었는가?

스태이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자리에 오르려고 무척이나 경쟁하고 있다.

SS: 많은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스타이 학생들은 학교내의 활동에서 눈을 돌려 학교 외의 과외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 지역사회의 기관들, 비영리단체들, 인턴쉽과 인터넛들 통해 그 기회를 찾는다면 많은 기회들이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몇몇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친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명분이 분명한 일을 위해 기금모음을 하는 것이다. 교사, 학부모, 대학진학상담교사 모두 이런 일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기관, 비영리단체, 학교내 클럽을 만드는 일들은 학생의 야망과 미래의 성공을 예측케하는 지도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입학사정관이 찾는 대학원생의 특징들이다.

ID: 이러한 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 어떻게 학교공부에서 우수한 성적도 유지하고 클럽들을 조직하는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SS: 물론 이런 조건을 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조건을 갖고만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충분한 계획과 여름 겨울 방학을 잘 활용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은 학교공부하는 일이나 성적을 유지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고 많은 일들을 성취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란 MySpace 나 Youtube만을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조사함으로써 같은 관심거리를 가진 전세계의 아이들끼리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ACULTY RECEPTION 자원봉사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학부모여러분의 진심어린 봉사정신에 힘입어 이번 가을 학기 교직원찬찬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하의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Rong Cao, James Callanan, Jenny Cho, Rosa Daoud, Joan Feder, Audrey Forman, Alese Garner, Carole Gervais, Dave Gibson, Mara Herman, Michelle Herman, Dan Higgins, Cynthia Hoffman, Ying Hu, Kathleen Kalmes, Hyehyang Kang, Bok Joe Kim, Sun Hwa Kim, Yo Jung Kim, Bozena Krukowski, Connie Kwan, Mary Ann Lawrence, Dong Son Lee, Joanne Liang, Betsy Lind, Susan Mendelsohn, Ellen Millar, Cathy Minuse, Susan Na, Long Ng, Jung Mi Park, Kui Sun Park, Lily Potter, Sylvia Rivas, Maria T. Alzugaray Rodriguez, Howard Sage, Emily Shapiro, Shirley Hong Shi, Larry Sit, Christine Stute, Rainbow Su, Beth Sugarman, Adele Ursone, Dana Vermilye, Connie Welsh, Kevin Welsh, Cathy Takagaki Yee, Gary Yee, and Neng-Fa Zhou 여러분께서 출석하여 계획하고 돕지않았다면 이 행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맛있는 디저트를 보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후원금을 보내주신 Carol Hess 씨와 채식주의 음식을 준비해 주신 Jane Yuen 씨, 졸업생 학부모 이신 Afsari 씨의 인도음식, 교사회외기간 중에 물을 제공해 주시고 이모저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Mrs. Wong 씨 감사사를 전합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 남아서 뒷정리를 해주신 Abby Schaeffer, Dorothy Weldon, and Priscilla Zhao 세 명의 훌륭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깊은 감사사를 전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미처 감사사를 전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Faculty Reception Co-Chair 인 Annette Farkas 와 Lillian Sage 드림

Executive Board Highlights(집행부 회의 하이라이트)

- 10월7일 집행부 모임에서 논의된 몇가지 중요사항
- 학교특별행사나 PA의 중요한 공고사항을 알리기 위해 소위 "robocalls" 시스템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robocalls제도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수단으로 스타이 식구들에게 그 때 그 때 필요한 정보를 가정으로 직접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화가 울리고 기계음으로 학교나 PA의 upcoming 행사에 관한 정보를 알릴 때 놀라지 말것을 당부한다. Robocalls은 유창한 만다린어, 광둥어, 한국어로도 전달된다.
-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심각한 시계정단으로 상당한 예산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타이PA는 교육예산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는 NYC 예산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One New York 이라고 하는 새로 창립된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기본정신은 공정성(fairness)입니다.
- 여러 달의 고민 끝에 우리 PA 집행부는 교지 Bulletin을 일차적으로는 online 으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프린트물은 virtual format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프린트물 Bulletin을 우편발송요청한 가정에 한해 우편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A의 회원이신 여러분에게는 Bulletin이 online 게재되는 즉시나 listserv를 통해 e-mail공지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e-mail을 통해 여러분들은 PA웹사이트로 URL link를 하실 수 있습니다. PA는 그동안 연중예산의 12%를 Bulletin인쇄와 발송비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이 비용절감을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쓰고자 합니다.

최근의 Bulletin 의 광고수입과 bulletin의 프린트판 요구opt-out으로 인해 약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집행부에서는 Bulletin의 발행횟수를 9번에서 6번으로 줄였었지만 올해는 다시 매월 발행하는 9번으로 발행횟수를 원상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Opt-in 을 통해서 Bulletin의 프린트물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만 우편발송하는 안전에 전폭적인 찬성을 얻었습니다. Bulletin의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분은 PA의 대외담당이사(Corresponding Secretary)이신 Dave Gibson 에게 Stuydaveg@yahoo.com로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뉴욕시장의 재선을 위한 학교 콘트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학교체제는 달랐습니다. Chancellor를 고용하고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는 시 전체의 학교위원회(School Board)와 지역공동체에서 선출된 지역학교위원회가 있어서 교감을 고용하고 학교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교감의 지도아래 교육정책을 받의하고 실행하고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일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장이 공립학교교육에 전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임만을 받는Chancellor를 임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4년후에 이 시장을 그 직책에서 쫓아내는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도 신임을 받기 두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교육체제에서 더 향상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지금이 그것을 표출하실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학년말이 뉴욕시공립학교 교육체제를 시장에 임명했던 법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공립학교 교육체제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새 학교정책법은 주의회의 투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립학교체제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예로서, 6년안에 학교체제가 3번이나 재조직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난이도 높은 시험주의, 킨더가든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보게 하는 것, 학교의 학업성적을 해석하기 힘든 기준표에 의해 글자하나로 바꾼것 등등. 과연 이러한 정책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학부모에게 주된 관심거리는 현재의 학교 정책은 학부모, 교사, 교장 또는 다른 입법에 관련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chancellor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논의가 스타이브스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현면 해 보십시오. 우리학생들은 이제 Regent테스트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또다른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Regent 테스트에서 낙제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180.5만불의 중간년도 예산삭감을 요구했을 때 또 우리 학생들이 그로 인해 각각의 학기 마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교육국은 교실로 돌려질 수 있는 예산을 다음과 같은 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 8천만불: 테스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비용
- 8천만불: 3-12 학년학생들을 위해 6주마다 한 번씩 치루는 맥그로우힐의 Acuity 모의 테스트 비용
- 5백만불: 테스트 운송비용 (교사봉급 수표운송비 포함)
- 4백만불: letter 점수로 나오는 중간성적표 발행 비용
- 40만불: 표준시험을 킨더가든으로 확대하기위한 실험 프로그램 비용
- 6백30만불: 매해 영국의 회사가 NYC 로 와서 학교의quality review를 위해 체제하는 비용- 대부분의 교장들은 이 비용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수백만불의 no-bid 계약건
- 지난 5년간 교육국(headquarter)의 고용28% 증가 대부분은 교육전공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기회는 사실상 없으며 이런 것은 모두 시장의 전권 안에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런 상황들의 변화를 위해서 입법의 책임이 있는 의 회의원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알려야 한다. 추가로 뉴욕시의 각각의 학부모들을 대표할 그룹들- 지역교육위원회- District Education Councils, 교실규모문제(Class Size Matters)- 이 우리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행정과 시장의 학교교육체제 통제에 대한 학부모위원회 (The Parent Commission on School Governanc and Mayoral Control)가 매월 만나 학부모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학교행정의 역사와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포름을 열고 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parentcommission@gmail.com이나 917-435-9329로 연락하기 바랍니다.